

아름다운 삶과 죽음

두 젊은이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써달라며 치료비로 큰 돈을 내놓았다. 또 두 노인들은 죽어서까지도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며 자신의 육신을 보시했다. 간혹 보고 듣는 이야기이지만 누구도 쉽게 할수없는, 그래서 더욱 가치로운 일, 새천년 첫해의 끝자락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난치병 환자에 써달라 1천만원 기탁 젊은이

서울 강남의 컴퓨터 관련 벤처기업에 다니는 강대영(가명·32)씨는 최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생명나눔신탁회에 전담했다. 생명나눔회에 내놓은 1천만원은 얼마전 회사로부터 성과급으로 받은 보너스. TV에서 병으로 신음하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던 강씨는 불우한 환자를 돕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주저없이 실천에 옮겼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아내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싶어요." 생명나눔신탁회 후원회원이기도 한 강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한사코 마다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이 진정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세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구에서 피부미용관리소를 운



영하는 문경화(30)씨도 며칠전 생명나눔신탁회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 생명나눔이 벌이고 있는 백혈병 환자돕기 소식을 접하고 나서다. "수술비 1천만원이 부족한 환자가 있다고 하기에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생명이 그렇지 않잖아요." 문씨는 노동으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지, 돈을 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 고 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소 이름이나 전화번호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주위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자신이 고만해질까 두렵다는 생각에서다. 문씨는 매월 16만원을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기도 하다.

시신 의과대 기증 故 문남이·박동욱씨

문남이 보살(83)은 지난 18일 세상을 떠나면서 부산 인제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했다. 한 많은 삶을 살아왔기에, 더욱이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부처님의 뜻을 따른 것이기에 문보살의 시신기증은 감동을 더해주었다. 어려서 부자집에 팔려 간 문보살은 모진 고생을 하다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행상 등으로 살아왔으며,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져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모진 삶을 이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런 문보살은 부산의 한 암자에 다니는 율가와 인연이 있는 수덕사 신도들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면서 불교를 접했고, 임종얼마전 "비록 늙고 쓸모없는 몸이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육신보시를 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불자인 동생 문정남씨(80)와 율계 임부춘씨(73)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경북 김천 직지사 신도였던 故 박동욱 거사(66)는 지난 18일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시신을 동국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99년 8월 모친이 이 학교에 시신을 기증한지 1년여만에 아들도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자 박거사의 아내 조선교씨(62)와 큰 딸 박진희씨(36)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삶을 회향한 박거사와 박거사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며 생명나눔회에 시신기증 신청서를 냈다. 아내 조선교씨는 다른 자식들 4명에게도 시신기증을 권유할 생각이다. 건설업체 대표였던 박거사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함께 사찰을 찾았을 정도로 신심이 두터웠으며 주위에 불자집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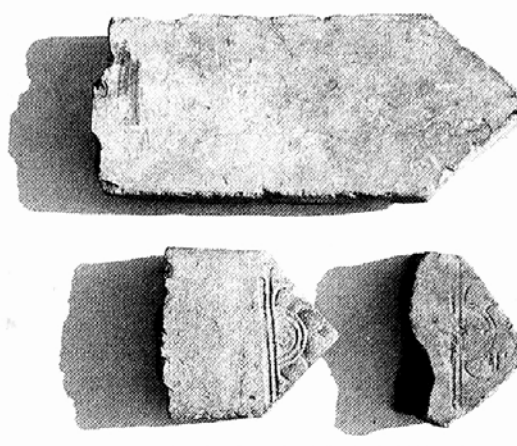
경주시 국내 최대 전탑터 발견

"모랑리 절터서...6세기 전후 축조 추정"

위덕대박물관 조사단

"6세기경 신라 왕경(現 경주시)에는 거대한 중국식 전탑(벽돌탑)이 있었다." 경주 위덕대박물관 불적조사단(단장 김무생)은 경주시 건천읍 모랑리 절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모랑리 절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탑이 있었던 삼국시대 중요 사찰이었다"고 발표했다. 불적조사단에 따르면 모랑리 절터에서 전탑을 축조할 때 사용했던 대형 모서리 벽돌과 5각 연화문 벽돌을 비롯해 연화문 수막새, 신라기와 등 30여 점의 파편 유물들이 채집됐다. 지금까지 5각 연화문 벽돌은 바닥에 깔았던 벽돌로 추정되어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탑 축조에 쓰였던 부재이며, 그 탑은 중국의 대형 전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돌출 벽돌'을 사용한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벽돌 파편과 함께 채집된 신라기와와 6세기 무렵의 토기제작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모랑리 절터의 전탑은 6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모랑리 절터의 폐 전탑은 최소 6세기 말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거대한 중국식 초기 전탑으로 보인다"며 "현재 안동 등지에 남아 있는 8, 9세기 통일신라시대 4기의 전탑의 조형기보다 앞선다"고 분석했다. 안동 지역 전탑의 발생지였다는 기존의 학설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불적조사단은 모랑리 절터 인접 지역에서는 폭 5~6m의 간선도로도 발견했다. 모랑리 절터는 과거 신라의 궁성을 에워싼 반월성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간선도로는 모랑리 절터와 왕경(現 경주시)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하는 단서로 평가된다. 위덕대박물관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은 "모랑리 절터에 세워졌던 전탑이 중국의 대형 전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돌출 벽돌'을 사용한 점은 당시 신라가 중국으로부터 전탑 축조기술을 직접 도입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 신라와 중국의 교류 연구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o@buddhapia.com)



모랑리 절터에서 채집된 5각연화문벽돌.

달라이라마 내년 방한 재추진

방한준비위 "노벨평화상 시상식 시위는 취소"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연내 한국방문이 정부에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는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한준비위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20여만명이 서명한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지역조직(대전 전주 광주 부산)을 구성해 계속 전개하고, 세계 각국의 지성인 99명의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화 '쿤돈'과 인터넷, 자료집 등을 통해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티베트의 초콜렛과 동국대 주민

항 박사 등 강사진의 전국 순회강연을 추진하는 한편 순례단을 모집해 달라이라마가 머물고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를 방문(내년 상반기경 3-4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일집행위원장 성관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연내 방한이 무산됐지만 준비위는 티베트방명정부와 일정을 협의해 내년에는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오는 12월10일 노벨평화상 시상식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황의시위를 벌이는 방안은 달라이라마의 재도 요청에 따라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 납골당 건축 허가 취소소송 '각하'

법원이 사찰의 납골당설치를 반대하는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신현리 주민들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가 허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소송당사자로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23일 마을 인근에 들어설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광주군 오폐면 신현리씨 등 주민 2명이 광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이익은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일반적인 이익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인권위 '불교여성회' 창립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연·한상범)는 20일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1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교여성회 창립 등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이날 침체된 불교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인권위 여성분과위원회'를 '불교여성회'로 개편, 독립적인 사단법인을 추진하기로 하고 회장에 법성스님(전 청량사 주지)을 선임했다. <관련인터뷰 4면> 여성 불자들의 진취적인 활동은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권익보호, 사회참여에 나서게 될 불교여성회는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노·도시빈민 등 여성·소외계층 문제를 비롯해 남녀고용평등 및 가족법상의 남녀평등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불교인권위는 또 남·북한 및 해외 불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불교연대'를 제안하고, 불자들이 민족 통일과정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에 지현스님

조계종 포교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정련)는 21일 포교인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12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지현스님(봉화 청량사 주지·사진)을 확정했다. 지현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신도포교를 활성화 하여 청량사를 경북 북부지역 포교도량으로 꾸리고, 제등행렬 행사를 온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축제로 승화시켰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어린이 포교 분야에 해상(공림사 주지), 권장섭(서울지법경찰청), 이학승(공동여고 교감), 김광태(통해사 군부사), 머루와 다래(가수), 통도사 국제포교부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박영동(동대부고) 교법사가 공로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원력상에는 지현스님(원주 송광사 주지), 김관용(구미시), 권장섭(서울지법경찰청), 이학승(공동여고 교감), 김광태(통해사 군부사), 머루와 다래(가수), 통도사 국제포교부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불교·선·조계종 등 한글도메인 '뺏겨'

한글도메인 선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각 종단명과 조계종 25교구본사 및 관공사찰명 등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한글.com 도메인에는 이외에도 불교, 선과 같이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슈퍼 키워드도 섞여있다. 20만개가 넘게 등록된 한글도메인 가운데 선정된 한글도메인은 현대, 삼성, LG텔레콤 등의 기업명부터 뉴스, 주식, 증권, 정보, 대화방 등의 일반 명사와 서울, 대한민국 등의 고유명사까지 모두 4,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한글도메인 선정 문제는 한글.com 도메인 등록을 주관하는 베리사인사가 한글도메인을 문자가 아닌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코드값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비롯됐다. 김지연 기자

한국최초개발! 초강력 고효율 근적외선 히타 사찰에 인기폭발!

이동용

- ▶GQ-1000C(1.3kw)
- ▶GQ-2000C(1.8kw)

사무실,점포용 사찰전용

상,하로 15°
좌,우로 45°

벽걸이용

- ▶GQ-1000W(1.3kw)
- ▶GQ-2000W(1.8kw)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 히타!

근적외선(Near Infra Red NIR)이란?
근적외선 NIR은 첨단과학에 의하여 새로이 발견된 적외선 단파로서 2200°C이상에서 생성되므로, 직진성이 매우 좋아 사람이나 정해진 대상에 복사에너지가 통하여 순간 난방을 제공하여 원적외선에 비하여 2배이상 고효율이므로 경제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본사 제조원 (주)성화엔터프라이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동림빌딩 1221호

불교용품 전문점

판매원 가야기획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2

☎ : (02) 723-2729 / 732-2461 · 2550

Fax : (02) 732-2462

◆ 사찰 또는 고지대에 계신분, 특히 체질적으로 추위에 약한 분이나 스님들에게 근적외선은 피하온열효과가 원적외선보다 3배나 우수하여 체력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Gold Quartz Heater 이께서 좋습니다.

- ◆ 사람과 대상물만 난방이 되고 공기는 그대로 이므로 환기가 불필요한 쾌적한 난방효과
- ◆ 1초이내의 쾌속난방이므로 예열이 필요없습니다.
- ◆ 전기에너지의 거의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열의 낭비가 없으며 9000시간의 램프수명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 ◆ 연소의 냄새나 오염이 없으므로 매우 위생적입니다.
- ◆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 각종 난방 가스로 인한 법당내부, 목재와 단청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 ◆ 이동이 용이하며 부분난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법회나 예불·기도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필요하신 분은 보내드립니다.